



Connecting the dots

달러를 지키는 전략,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이유

워시·베센트·드러켄밀러,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을 하나의 금융 구조로 읽다

Author: Ricky Sohn

Email: bluelakehq@gmail.com

Relevant Links: www.lightwoodcap.com, www.bluelake.kr

Summary | 핵심 요약

I. 미국 금융을 바라보는 세가지 다른 시각: 미국은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를 유지하면서 성장을 이어가야 합니다. 베센트의 국채시장 지원, 워시의 물가 안정, 드러켄밀러의 정책 견제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금융 신뢰를 지키는 데 필요한 조건을 보여줍니다.

II. 단기국채를 꾸준히 사줄 수요처: 장기채 바이백의 재원을 단기채로 조달하면 차환이 더 잦아집니다. 단기국채 등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미국의 지속적인 차입 수요를 뒷받침할 주체입니다.

III. 해외의 송금·저축·투자가 만드는 디지털 달러 수요: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금융 접근 수요에 토근화 미국 주식 투자까지 더해지면, 디지털 금융 안에 머무는 달러 잔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USDC 유통량은 2026년 6월 말 약 7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습니다. 준비자산의 확대가 국채 직접 매입과 국채 담보 자금시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IV. 달러 사용과 디지털 금 보유의 공존: 달러가 널리 쓰여도 장기 구매력을 지키려는 수요는 남습니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발행량을 조절하지 않는 자산을 원하는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은 별도의 선택지가 됩니다. 디지털 금융의 확장은 이 자산에 접근할 투자자층을 넓힙니다.

V. 미국이 디지털 금을 먼저 확보할 유인: 미국은 달러의 사용처를 넓히면서 국제적인 가치저장 수요의 다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비축은 미래 금융 질서에서 미국의 선택권을 남기는 전략이며, 국가·기관의 편입이 확산될수록 제한된 물량을 확보하려는 유인은 커집니다.

VI. 장기 자산 배분이 만드는 가격 재평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2026년 8월 약 35.4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국가·기관의 보유와 신규 현물 매수가 지속되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비트코인에는 상승 압력이 쌓입니다. 장기 자산 배분의 확대가 중장기 가격 재평가의 핵심 동력입니다.



I.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세 사람, 함께 풀어야 하는 하나의 문제

미국의 성장과 국제적 영향력을 떠받치는 기반 중 하나는 달러를 중심으로 한 금융 질서입니다. 세계 각국이 달러로 거래하고, 중앙은행과 투자자가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구조는 미국에 폭넓은 자금 조달 기반을 제공합니다. 달러의 국제적 지위는 미국이 투자와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 자산입니다.

이 구조를 유지하려면 세계의 투자자가 달러와 국채를 계속 믿고 보유해야 합니다. 부채와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재정 운영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신뢰까지 약해지면, 투자자는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달 비용의 상승은 정부의 재정 여력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에도 부담을 줍니다. 성장세가 약해지면 부채를 감당하기도 더 어려워집니다.

미국이 풀어야 할 문제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조달하면서, 그 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달러와 국채의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베센트의 국채시장 지원, 워시의 물가 경계, 드러켄밀러의 정책 비판이 왜 함께 중요한지 드러납니다.

베센트는 국채의 거래 여건이 정부와 민간의 차입 비용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워시는 물가를 통제할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지면 장기 투자와 성장의 기반도 약해진다고 봅니다. 드러켄밀러는 정부가 금리의 가격 신호를 억누르면 재정과 물가의 위험을 해결할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표 1. 미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세 가지 조건

인물	강조하는 조건	미국의 성장과 연결되는 이유
스콧 베센트	국채 유동성과 자금 조달 기반	정부와 민간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함
케빈 워시	물가 안정과 통화 신뢰	화폐를 신뢰해야 장기 투자와 계약이 지속될 수 있음
스탠리 드러켄밀러	시장 규율과 정책에 대한 견제	금리가 전달하는 재정·물가 위험을 정책에 반영해야 함

드러켄밀러는 워시와 베센트의 협업에 기대를 밝혔지만 장기국채 바이백 확대에는 반대했습니다. 시장 지원의 필요성과 개입의 부작용을 놓고 실제 이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균형을 지키면서 국채를 꾸준히 보유할 수요처까지 넓혀야 합니다.



II. 늘어나는 미국 부채, 단기국채를 사줄 새로운 수요처

미국은 재정 적자와 만기 도래 국채의 차환을 위해 계속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부채 부담이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어떤 만기의 국채를 발행하고, 누가 그 물량을 받아줄 것인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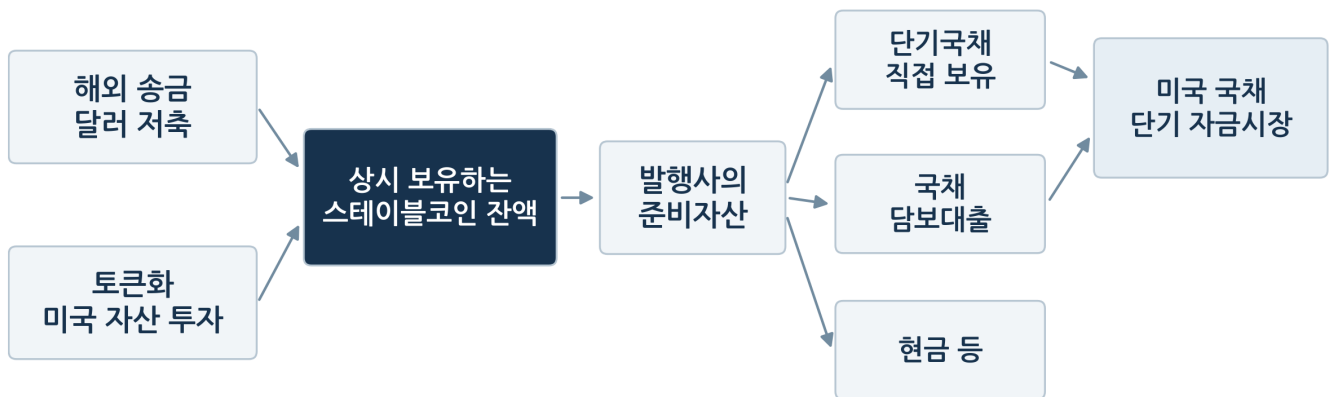
베센트의 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장기채 시장 지원과 단기채를 활용한 자금 조달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재무부는 8월 발행계획에서 중장기 국채의 발행 규모를 유지하면서 차입 수요의 변화를 단기채 발행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장기채 바이백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장기채를 되사는 재원을 단기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그만큼 민간이 보유하는 국채의 만기가 짧아집니다. 이 구조에서는 단기국채를 꾸준히 매입할 수요가 중요해집니다. 만기가 짧아져 자금을 더 자주 다시 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그 수요처 중 하나입니다. 발행사는 이용자의 달러 상황에 대비해 단기국채 등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합니다. 베센트도 스테이블코인과 머니마켓펀드의 성장이 단기국채 수요를 늘릴 것이며,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면 국채 발행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자금 조달 필요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 수요가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스테이블코인을 앞으로 누가, 어떤 필요 때문에 더 보유할 것인가입니다.

그림 1. 해외의 금융 수요가 미국 금융시장으로 이어지는 경로



토큰화 주식 투자에서 연결되는 것은 거래·결제용 달러 잔액 수요입니다.

주: 토큰화 주식의 담보는 해당 주식입니다. 화살표는 결제·투자용 달러 잔액과 준비자산 수요의 연결 경로를 나타냅니다.



III. 해외의 송금·저축·투자 수요가 미국 국채로 이어진다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는 달러와 미국 자산을 보유하고 싶지만 기존 금융망에서는 접근이 어려웠던 해외 사용자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아프리카에서 송금 비용이 높거나 달러 계좌 이용이 제한된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달러를 받고 보관하는 것 자체가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할 이유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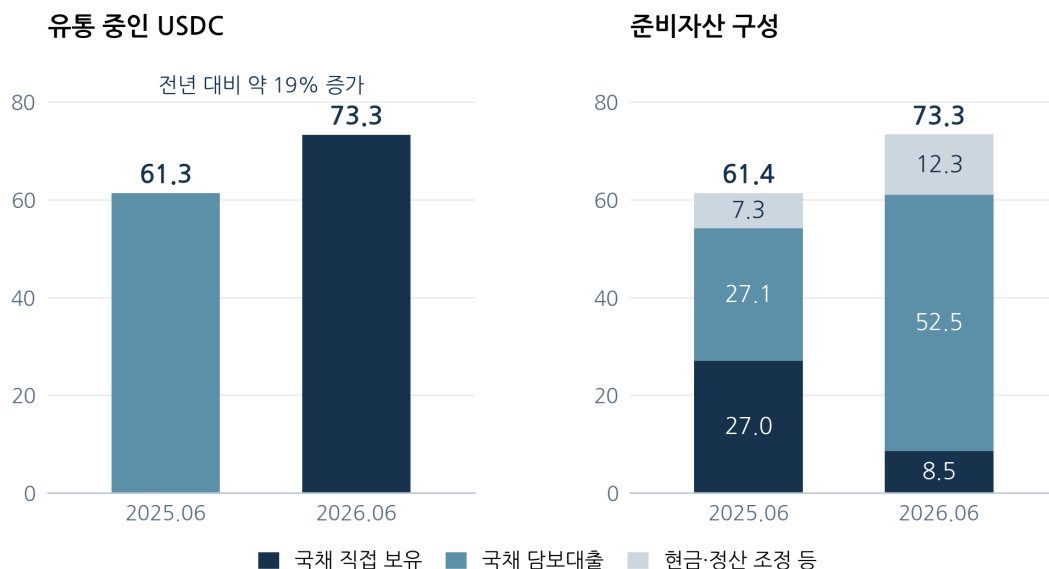
이 필요는 이미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IMF는 나이지리아에서 통화 가치 하락과 외환 접근의 제약이 달러 연동 자산 수요를 키웠으며, 가계와 소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송금과 대금 지급에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Coins.ph와 Circle이 USDC 송금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금융의 비용과 접근 장벽이 디지털 달러의 성장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RWA, 특히 토큰화 주식은 여기에 미국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더합니다. Ondo와 Alpaca는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의 적격 시장을 대상으로 토큰화 미국 주식·ETF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Kraken의 xStocks도 USDC 등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지역에서는 달러를 송금하고 보관하던 사용자가 같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미국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송금·저축·투자를 같은 금융망에서 할 수 있다면 거래할 때마다 자금을 현지 통화로 되돌릴 필요가 줄어듭니다. 다음 결제와 투자를 위해 지갑이나 거래소에 달러 잔액을 유지할 이유가 커집니다. **이렇게 상시 보유하는 스테이블코인 잔액이 커질 때, 이를 뒷받침하는 준비자산의 수요도 늘어납니다.** 주식 토큰은 해당 주식으로 뒷받침되며, 국채와 연결되는 것은 별도로 유지되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입니다.

그 규모는 이미 작지 않습니다. USDC 유통량은 2025년 6월 말 약 613억 달러에서 2026년 6월 말 약 733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준비자산은 약 614억 달러에서 733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026년 6월 말에는 국채 직접 보유가 약 85억 달러, 국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제공한 대출인 역레포가 약 525억 달러였습니다. 발행사의 준비자산 수요는 국채 매입과 국채 담보 자금시장 양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림 2. USDC의 성장과 준비자산 구성



각 연도 6월 30일 기준 · 단위 십억 달러 · USDC 단일 발행사 사례



해외 사용자는 국채를 직접 매수하지 않아도 달러 토큰 보유를 통해 발행사의 준비자산 수요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현지 통화나 달러 현금으로 보유하던 자금이 유입되면 미국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자금의 기반이 넓어 집니다. **신흥국의 송금·저축 수요에 미국 자산 투자까지 더해지는 변화는, 미국이 해외의 일상적인 금융 활동에서 지속적인 자금 조달 기반을 확보할 기회입니다.**

IV. 달러를 쓰면서 디지털 금을 보유하는 이유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주식이 널리 쓰이면 디지털 지갑은 송금 수단이자 투자계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자금이 머물기 시작하면 사용자의 다음 선택은 자산 배분입니다. **거래에 쓸 달러와 장기 보유할 자산을 어떤 비중으로 나눌 것인가.** 비트코인의 기회는 이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현지 통화의 불안에 대비하는 데 유용하더라도 미국의 물가가 오르면 달러로 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줄어듭니다. 달러의 국제적 사용이 확대되는 동안에도 장기 구매력을 보존하려는 수요가 남는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투자자는 자산의 일부를 특정 국가의 통화 발행이나 기업의 실적에 직접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보유하려 합니다. 비트코인의 현행 발행 규칙은 총량을 약 2,100만 개로 제한하며, 정부의 차입 필요나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춰 공급을 늘리지 않습니다. 달러로 거래하고 미국 기업에 투자하면서도 별도의 자산에는 이러한 공급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수요는 이 자산 배분에서 나옵니다. 공급의 희소성과 발행 주체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신뢰하는 투자자에게 BTC는 화폐와 신용의 확대에 대비해 장기 보유할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희소성만으로 구매력 보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그 역할은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와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RWA는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투자자층을 넓힙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투자 논리는 그중 일부가 BTC에 자산을 배분할 이유를 제공합니다. **투자 접근성의 확대와 장기 보유 동기가 만나 실제 매수로 이어질 때, 달러 중심 금융의 확장은 비트코인의 수요 기반도 키울 수 있습니다.**

V. 미국은 달러의 시장을 넓히면서 디지털 금의 보유 몫을 확보한다

비트코인이 국제적인 장기 보유 자산으로 자리 잡는다면 미국에도 그 가치를 일찍 확보할 유인이 생깁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공급을 늘려 자국의 보유 몫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금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커질수록 기존 보유분을 유지하는 선택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집니다.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도 세계의 모든 가치저장 수요를 달러 안에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국제적인 보유 자산으로 성장한다면, 이미 확보한 물량을 유지하는 것은 미래 금융 질서에서 미국의 선택권을 남겨두는 전략이 됩니다. **달러의 사용처를 넓히는 동시에, 가치저장 수요가 다변화되는 상황에도 대비하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은 이러한 선점 논리를 직접 제시했습니다. 제한된 공급과 디지털 금의 성격을 언급하고, 먼저 비축하는 국가의 전략적 이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몰수 BTC의 비축과 매각 제한에서 출발했으며, 추가 확보 전략에는 예산 중립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행정명령 자체가 신규 시장 매수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세계적 성장을 지원한 2025년 1월 행정명령과 비축 정책을 함께 보면 미국의 두 가지 경제적 이해관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의 사용처와 국채 수요를 넓힙니다. BTC 보유는 디지털 금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경우 국가 자산의 가치 상승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표 2. 미국이 디지털 달러와 비트코인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

구분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국가의 비트코인 비축
확대하려는 것	달러 사용과 준비자산 수요	디지털 금에 대한 국가의 보유 몫
경제적 이익	미국의 자금 조달 기반 확대	디지털 금의 가치 상승에 참여
성립 조건	지속적인 달러 토큰 보유와 준비자산 운용	BTC의 장기 수요와 국제적 위상 확대

미국의 비축은 비트코인을 국가가 장기 보유할 자산으로 다룬 선례입니다. 다른 국가와 기관도 디지털 금의 성장에 참여하려 한다면 제한된 물량을 먼저 확보할 유인이 커집니다. **달러의 유통망을 확대하면서 디지털 금의 보유 몫까지 확보하는 전략은 미국에 양쪽 시장의 성장에 참여할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 선택이 다른 국가와 기관으로 확산될 때 BTC의 수요는 국가 비축과 장기 자산 배분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VI. 디지털 금의 편입 확대가 가격을 재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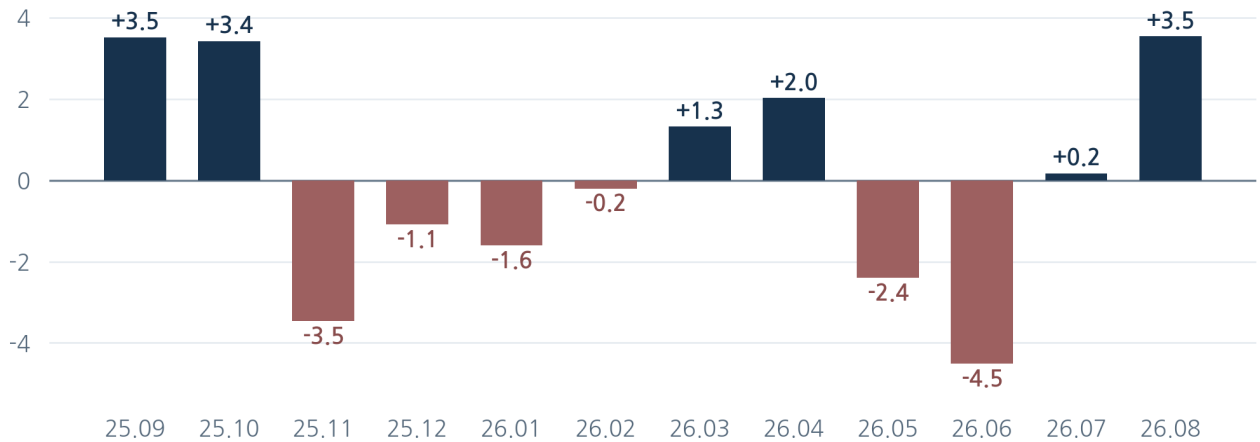
앞선 변화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마지막 연결고리는 실제 현물 매수입니다. 국가 비축과 기관의 장기 보유가 매도 가능한 물량을 제한하는 가운데 새로운 매수가 이어지면, 매수자는 기존 보유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요가 늘어도 발행량을 크게 늘릴 수 없는 비트코인에서는 지속적인 자산 배분의 확대가 강한 가격 상승 동력이 됩니다.**

실제 자금 흐름에는 유입과 유출이 함께 나타납니다. Farside Investors의 일별 자료를 월별로 합산하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미국 BTC 현물 ETF의 누적 순유입은 약 7.0억 달러였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약 45.1억 달러가 순유출됐지만, 8월에는 약 35.4억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ETF를 통한 매수 수요가 존재하면서도 금융 여건에 따라 상당한 환매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림 3. 미국 BTC 현물 ETF의 월간 순유입과 순유출

최근 12개월 누적 순유입 약 7.0억 달러



Farside Investors · 일별 수급의 월별 합산 · 단위 십억 달러

기간: 2025년 9월~2026년 8월. 단위: 십억 달러. Farside 일별 Total을 월별 합산했습니다. 2026년 9월은 미완결 월이므로 제외했습니다. ETF 순유입만으로 최종 투자자의 유형이나 장기 보유 의도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자산 편입은 비트코인 보유량에서도 확인됩니다. Strategy는 2026년 8월 23일 840,447 BTC, 9월 7일 845,050 BTC를 보유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두 가지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의 디지털 금융 수요가 스테이블코인 잔액과 준비자산을 늘리는지, 그리고 확대된 시장에서 BTC를 장기 보유하려는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는지입니다.

확인할 흐름	핵심 지표	강세 논리를 약화시키는 변화
디지털 달러의 보유 수요	스테이블코인 순발행, 국채 직접 보유와 국채 담보대출의 구분	환매가 지속되고 준비자산이 축소됨
토큰화 자산의 이용 확대	보유 자산 규모·이용자와 거래·결제용 달러 잔액	거래량만 늘고 자산·잔액은 정체됨
BTC의 장기 자산 배분	현물 ETF 순유입, 국가·기관의 실제 매수와 보유 유지	신규 매수 없이 레버리지만 늘거나 장기 보유분이 매도됨
투자를 지속할 금융 여건	생산성·물가 추세와 실질금리	높은 실질금리와 현금 확보 수요가 자산 배분을 압박함



높은 실질금리와 유동성 부족은 장기 수요가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강세를 뒷받침하는 것은 이러한 변동 속에서도 지속되는 현물 매수와 보유입니다.

Bluelake는 신흥국의 달러·미국 자산 수요가 스테이블코인과 RWA 시장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 조달 기반과 비트코인의 잠재 투자자층이 함께 넓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비축을 계기로 국가·기관의 디지털 금 편입이 확산되고 추가 현물 매수와 장기 보유가 이어진다면, 제한된 물량을 확보하려는 수요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장기 자산 배분의 대상으로 편입되는 변화가 중장기 가격 재평가의 핵심 동력입니다.



용어 설명

용어	설명
미국 단기국채 (Treasury Bills·T-bills)	통상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미국 국채입니다. 짧은 만기와 높은 유동성 때문에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과 단기 자금 운용에 활용됩니다.
차환(Refinancing)	만기가 돌아온 부채를 새로운 차입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의 부채라도 만기가 짧으면 차환이 더 자주 필요합니다.
국채 바이백(Treasury Buyback)	미 재무부가 기존에 발행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제도입니다. 거래 유동성 개선과 현금 관리 등에 활용하며, 국채 발행 대금과 보유 현금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 규모 전체가 순유동성 공급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달러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토큰입니다. 이 글은 주로 현금·단기 금융자산 등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발행사형 스테이블코인을 다룹니다.
준비자산(Reserve Assets)	발행사가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USDC 사례에서는 현금, 단기국채, 국채 담보대출 등이 포함됩니다.
역레포(Reverse Repo)	자금을 제공하는 쪽에서 본 환매조건부 거래입니다. 이 글의 USDC 사례에서는 Circle Reserve Fund가 국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하룻밤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를 뜻하며, 국채 직접 매입과 구분합니다.
머니마켓펀드(MMF)	단기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Circle Reserve Fund는 USDC 준비자산을 운용하는 정부형 MMF입니다.
RWA(Real-World Assets)·토큰화 자산	주식·채권 등 기존 자산에 대한 권리나 경제적 노출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상품마다 담보·상환·권리 구조가 다릅니다.
토큰화 주식	특정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토큰입니다. 직접 주식을 보유할 때와 의결권·배당 처리·상환 권리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국가가 장기적인 정책 목적을 위해 BTC를 보유·관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2025년 행정명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몰수 BTC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현물 ETF 순유입	ETF의 설정·환매 등에 따른 순자금 유입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거래소에서 ETF 지분이 매매된 거래대금과는 다르며, BTC 투자 수요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실질금리	명목금리에서 기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본 금리입니다.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현금·채권 보유의 상대적 매력이 커져 BTC 같은 자산의 수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Compliance Notice

본 기고문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시장 해석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기고문은 특정 가상자산,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또는 기타 투자대상에 대한 매수, 매도, 보유, 청약, 교환, 대여, 예치, 스테이킹, 레버리지 거래 또는 기타 어떠한 투자행위도 권유·추천·제안하거나 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본 기고문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공개자료, 시장 데이터, 온체인 데이터, 제3자 리서치 및 저자의 주관적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자 및 발행자는 본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계속성, 신뢰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는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기고문은 독자의 개별적인 투자목적, 재무상태, 투자경험, 위험선호도, 투자기간, 세무상황, 법률상황 또는 기타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기고문의 어떠한 내용도 독자 개인에게 적합한 투자전략이나 맞춤형 투자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자는 본 기고문에 의존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투자 여부는 반드시 본인의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고, 시장 유동성, 규제 변화, 거래소 리스크, 커스터디 리스크, 기술적 결함, 해킹, 프로토콜 변경, 거시경제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원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손실할 수 있는 고위험 자산입니다. 과거의 가격 흐름, 수익률, 온체인 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또는 백테스트 결과는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자, Lightwood, Bluelake Research, Bluelake 및 앰앰코인은 본 기고문 또는 본 기고문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해석, 재배포, 인용 또는 이에 기초한 투자 판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간접적 손실, 기회비용, 거래손실, 세금상 불이익, 법률상 불이익, 데이터 오류로 인한 손실 또는 기타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령상 허용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기고문에 언급된 가격, 지표, 전망, 시나리오 및 의견은 작성 시점의 시장 상황을 전제로 한 참고용 의견일 뿐이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자 및 발행자는 본 기고문 발행 이후 시장 상황 변화, 데이터 변경, 전망 수정 또는 오류 발견과 관련하여 본 기고문을 업데이트하거나 정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기고문에 포함된 제3자 데이터, 차트, 자료 및 외부 링크는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저자 및 발행자는 제3자 자료의 정확성, 완전성,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 또는 해당 자료에 기초한 판단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본 기고문 작성일 현재 비트코인(BTC)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기고문과 관련하여 저자, Blue Lake Research, Bluelake 및 앰앰코인이 특정 거래소, 발행사, 운용사, 프로젝트, 투자회사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보수, 수수료, 광고비, 자문료, 투자금, 리워드 또는 기타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본 기고문에 언급된 자산과 관련하여 독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도의 중대한 이해상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자 및 관련 주체는 본 기고문 발행 전후로 본문에서 언급된 자산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거래 방향은 본 기고문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고문의 견해는 저자 개인, Lightwood, Bluelake Research의 시장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저자가 소속되었거나 과거에 소속되었던 기관, 회사, 단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암암코인은 Bluelake가 소유·운영하는 디지털자산 리서치 및 콘텐츠 브랜드입니다. 암암코인은 시장 데이터와 리서치를 기반으로 개인 투자자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고문 내 암암코인 관련 언급은 브랜드 및 서비스 소개 목적을 포함하며, 특정 자산의 매매 또는 투자행위를 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본 기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 수정, 배포, 전송, 인용, 재가공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기고문을 인용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도 원문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도록 편집하거나, 특정 투자행위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